

“이동식 수납 가구로 공간 재구성… 방화 뉴타운 랜드마크”

부동산 현장 르포

‘래미안 엘라비네’ 견본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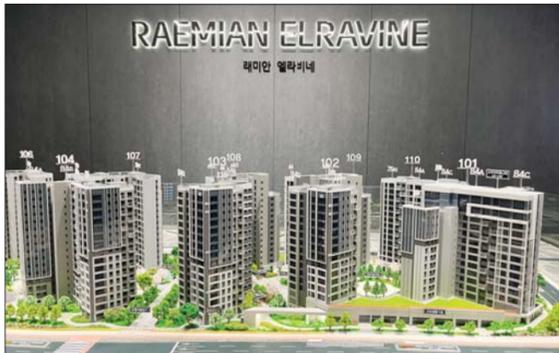
지난 13일 찾아가 ‘래미안 엘라비네’ 견본주택. 올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급되는 래미안 아파트로, 강서구에 래미안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다. 방화뉴타운 2·3·5·6구역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구역의 첫 신축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래미안 엘라비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44~115㎡ 272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44㎡ 8억4800만~9억2000만원, 59㎡ 13억5600만~14억2900만원, 76㎡ 15억5500만~16억880만원, 84㎡ 17억300만~18억4800만원 수준이다.

먼저 독특한 아파트 이름이 눈에 띈다. ‘엘라비네(Elavine)’는 스페인어 정관사 ‘EL’과 협곡을 뜻하는 ‘RAVINE’을 연결한 말이다. 협곡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디자인에 반영해 방화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넉넉한 수납…특화 설계 눈길

견본주택에는 84㎡A 한 가지 타입의 유닛만 마련됐다. 일반분양 규모가 81가구가 가장 많은 평형이다. 유닛 내부를 둘러보니 전반적으로 드레스룸과 펜트리 등 수납 공간이 넉넉했다. 거실 쪽을 넓힌 구조도 특징이다. 84㎡ 타입의 경우 거실 폭이 약 4.8m에 달해 개방감



‘래미안 엘라비네’ 아파트 견본주택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84㎡ 거실 폭 4.8m 개방감 강조 ‘넥스트퍼니처’ 미래형 주거기술 9호선 신방화, 5호선 송정역 인접 뉴타운 개발시 상권 살아날 것 국민평형 실분양가 20억 수준 향후 개발에 따라 가치 상승 여지

을 강조했다. 방문객은 수납공간 안쪽을 들여다보고 기본 옵션과 유상 옵션을 비교하며 상담 직원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인테리어는 래미안의 대표 상품 ‘넥스트퍼니처’다. 이동식 수납가구를 활용해 방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미래형 주거 기술이다. 전시된 84㎡A 유닛은 현관과 가까운 두 개 침실에 이 옵션이 적용됐다. 기본 구조는 두 방이 분리돼 있지만 넥스트퍼니처 옵션을 선택하면 침실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때 움직이는 가구를 통

해 공간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가구 아래 숨겨진 바퀴가 있어서 특별한 장비 없이 쉽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현장에서 이를 직접 본 방문객들은 “바퀴가 안 보이는데 가구가 움직이고, 방을 합쳐 쓰거나 나눌 수 있는 점이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였다.

전시된 평형 외 다른 타입은 디지털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44㎡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평면으로 공간을 효율화했다. 76㎡A2 타입은 주방에 작은 창이 난 구조로 맞통풍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위치가 신방화역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서 분양가는 76㎡A1 타입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코너에 위치한 84㎡C 타입의 경우 거실 두 면에 창을 둔 구조다. 창이 늘어난 만큼 채광과 개방감을 자랑한다. 강서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40평대, 115㎡도 29세대 공급된다. 규모에 걸맞게 수납공간이 확장되고 거실과 마주보는 대면형 주방 옵션도 이용할 수 있다.



84㎡A 유닛의 넥스트 퍼니처 구조. 두 개의 침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할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 신방화역 초역세권 고급 브랜드

방문객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방화동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고급스럽고 구조도 깔끔한 것 같다”며 “동네에 이런 브랜드 단지가 들어와서 좋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사는 50대 B씨는 “아무래도 래미안이라 관심이 가고, 궁금해서 와 봤다”며 “상담을 받아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입지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C씨는 “지금 사는 마포랑 가깝기도 하고, 마포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찾아보게 됐다”며 “84㎡는 가격이 세서 59㎡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3~5분 거리로 초역세권이다. 5호선 송정역도 가까워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래미안 엘라비네 공사지 인근 ‘S부동산공인중개업소대표는 “이곳은 상권이 아직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면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권도 점차 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 옵션 더하면 20억…방화뉴타운 첫 시험대

방화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모텔하우스에 다녀왔다는 지인은 가격이 비싸서 가우뚱하더라”고 전했다. 고급 마감재와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을 추가하면 국민평형 기준 실분양가는 19억원, 20억원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 가치는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곡 업무지구에 대기업과 연구시설이 많아서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하다”며 “외국과 공항에 자주 가거나 직장 가까이 실수요층이 청약에 많이 넣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 흐름과 브랜드 신축 단지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라며 “방화뉴타운 첫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개발 진행에 따라 가치 상승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화뉴타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4000여 가구 규모 신축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다. 마곡지구와 맞닿은 입지까지 고려하면 서부권 주거축으로 떠오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강서에서 18억원을 넘는 분양가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래미안 엘라비네 청약이 방화뉴타운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신한은행, 서남권·동남권에 특화거점 구축

광주·부산에 SOL클러스터 구축 지역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신한은행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동남권 특화 거점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SOL클러스터’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지역 거점 금융지원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서남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신한SOL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서남권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 지능(AI) 및 융합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광주 AI 특화 클러스터’를 설치한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심사·영업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춘 여신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동남권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 조선·방산 밸류체인 지원을 위한 ‘부산 합정 MRO(Maintenance·Repair·Overhaul) 클러스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운영과 연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고객상담센터 구축 및

지역인재 우선 채용 ▲광주 ‘학이제’ 신규 조성을 통한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와 기존 거점 프로그램 고도화 ▲배달앱 ‘뽕겨요’와 대학생 플랫폼 ‘헤이영캠퍼스’를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및 지방 대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SOL클러스터는 지역 산업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n1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이 빌 윈터스(Bill Winters)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영 스탠다드차타드와 업무협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장기회 도모

하나금융그룹은 영국의 글로벌 금융 그룹 스탠다드차타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디지털 자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 역량을 결합,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각 사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에서의 협업 다각화

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등의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KB국민은행 ‘생산적금융 협의체’ 출범

‘생산적금융 종합 가이드’ 발간

KB국민은행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생산적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영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종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생산적금융 협의체는 KB금융그룹의 생산적금융 협의회와 연계해 은행 기업

금융의 생산적금융 전환을 가속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경영진 및 본부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영업현장 경영진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 총 3개의 협의체로 나누어 운영된다.

본부 경영진 및 본부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생산적금융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업현장

경영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본부와 영업현장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생산적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종합 가이드’도 제작했다. 가이드에는 ▲생산적금융의 개념 ▲생산적금융 특화 상품 ▲생산적금융 관련 마케팅 포인트 ▲정책자금 및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생산적금융 관련 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